

2019년도 서울 미래유산 선정 목록

※ 서울 미래유산 선정 : 16건 (문화예술 7건 / 시민생활 5건 / 도시관리 4건)

연번	분과	유형	미래유산명	선정 사유
1	문화 예술	화랑	통인화랑	1975년 개관하여 박서보, 윤광조, 허건 등 유명미술 작가를 발굴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로 고미술품들 운송을 최초로 시작 하는 등 역사를 갖춘 화랑임
2		화랑	조선화랑	1971년 개관하여 국제기획전·해외 아트페어에 참가하여 한국작가들의 국제시장 진출의 길을 여는데 큰 기여를 한 화랑임
3		화랑	예화랑	1978년 개관하여 백남준 관련 많은 작품전을 기획 하였고, 강남의 첫 화랑으로서 신사미술제를 개최하는 등 강남지역의 미술문화를 선도한 화랑임
4		화랑	샘터화랑	1978년 개관하여 1980년대 민중미술 관련 많은 작가·작품을 발굴하여 민중미술에 중요한 역할을 한 화랑임
5		소설	전아사	1927년에 발표된 최서해 소설 <전아사(錢迺辭)>는 ‘전벌사’의 반대로, 즉 잔치를 베풀면서 환영하는 말이라는 뜻을 담고 있음. 최서해의 자전적 소설의 맥을 보여주며 간도에 있다 서울로 처음 온 함경도 출신 주인공이 서울의 풍속과 문화에 젖어들면서 예전의 생활을 잊어버리게 되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음
6		소설	전차구경	1976년에 발표된 하근찬 소설 하근찬의 <전차구경>은 1976년 1월 <<문학사상>>에 발표된 작품으로, 1974년 처음으로 개통된 지하철 1호선을 타러 간 조주사와 손자의 하루 여행을 다루고 있음. 이 소설에는 지하철역과 지하철의 당시 상황 등 서울의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 되어 있음. 이 소설은 서울의 역사로서, 그리고 기차와 전차, 그리고 지하철의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음
7		소설	어머니	1925년에 발표된 나도향 소설 흥성거리는 종로의 거리와 청파동, 효창공원 등 당시(일제강점기)의 서울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음. 첩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던 여주인공이 아이를 버리면서까지 가출을 감행하여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자유연애와 모성의 결핍을 나타내고 있음

연번	분과	유형	미래유산명	선정 사유
8	시민 생활	식당	옛날집 낙원아구찜	1977년 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 운영중인 아귀찜 가게로 종로3가 낙원동 아귀찜 거리에서 가장 오래된 아귀찜 가게임
9		식당	원대구탕	1979년 개업하여 2대째 가업을 이어 운영중인 대구탕 가게로 삼각지 대구탕 골목에서 가장 오래된 대구탕 가게임
10		음식	불고기(너비아니)	불고기(너비아니)는 조선시대 반가 조리서에 나오며 서울 반가에서 많이 해먹던 고기구이 음식으로, 이후 불고기로 진화하여 서울음식으로 자리하고 있음
11		음식	구절판	구절판은 9개의 칸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릇에 채소·고기류 등 여덟 가지를 담고 가운데 담은 밀전병에 싸먹는 음식으로 조선요리법(1939년)에도 소개되어 있고, 서울의 한정식 요리점에서 선보이며 서울음식으로 자리하고 있음
12		기록물	조선요리법	1939년에 발간된 서울 반가음식을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서술한 조리서로 당시 대중들에게 큰 호평을 받은 책임. 서울음식의 원형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서울음식 조리법의 보고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13	도시 관리	종교시설	통일교 전 본부교회	1977년 건축가 이희태가 설계한 건축물로 육각형 평면구조를 사용하고 입면이 세련되어 건축적으로 빼어난 작품으로 보존 가치가 있음
14		종교시설	용산제일교회 교회동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에 석재를 사용하여 지어진 건축물로 단아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보존가치가 있음
15		학교	환일고등학교 십자관	1957년 건립된 철근콘크리트와 석조를 병용한 학교 건축물로서 원형이 잘 보존 되어 있으며 보존가치가 있음
16		업무시설	공공일호 (구 샵터사옥)	1979년 지어진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이며 대학로에 위치하여 연극인, 화가 등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는 공간으로 리모델링시 건축가 조재원이 변화를 잘 소화해낸 건축물로 보존가치가 있음